

 국토해양부 <small>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small>	보 도 자 료		 <small>국토해양부</small>
	배포일시 2010. 11. 18(목) 총 6매(본문 3, 첨부 3)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 과장 박준권, 서기관 김명진, 주무관 유종수 • ☎ (02)2110-8616, 8617		
보 도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한·중·일 삼국 항만이 뭉쳤다”

-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제주에서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중·일 3국 항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가 201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 항만분야의 최고 실무자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각국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국제회의이다.
- 특히, 상해, 선전, 닝보 등 중국 항만의 급성장, 한국의 부산항 신항 개장, 일본의 컨테이너 전략항만 지정 등 삼국 항만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 항만의 이슈와 트렌드를 논의하고 동북아 삼국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협의 채널이다.

-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금번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의 주제는 ‘동북아 항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서
 - 삼국 항만간 물류장벽을 제거하고, 동북아 삼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동북아 역내 교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통합물류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중국, 일본 측에 강조하고
 - 이를 위해 ① 한·중·일 공동 화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 항만물류 장비 표준화 ③ 해운-항만-철도 연계 시스템 구축 ④ 3국 공동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⑤ 그린포트* 구축 ⑥ 항만간 상호 교차 투자 촉진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 * 그린포트(Green Port) :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풍력, 파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친환경적 개념의 항만을 의미
- 또한,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을 위해 ‘동북아 항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칭) 21세기 동북아 삼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동북아 항만 이니셔티브’라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채택함으로써 삼국 항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작성된 공동보고서는 자국 내 협의를 거쳐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임

□ 특히, 이번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서는 한·일간 물류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미해결 과제인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교행 등 한·일간 복합운송 협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행계획 수립에 대하여도 논의할 계획으로 한-일간 물류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한·중·일 삼국은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항만에서 이산화탄소 절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실행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며,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 태풍, 해일 등에 대비하여 **동북아 연안재해 안전망*** 구축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 항만 및 연안지역 기후변화 영향정도 분석, 삼국 공동의 안전도 기준 정립, 재해방지시설 도입,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등

□ 이와 더불어, 11월 20일에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 이어 **동북아 항만물류 미래전략, 항만의 녹색성장**을 주제로 동북아 항만 심포지움이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1.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요
2. 동북아 항만 심포지움 개요

붙임 1

제11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요

◇ (회의목표) 지난 10년간의 국장회의 성과를 3국이 재확인하여 **향후 항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1. 국장회의 개요

□ 時·所 : 2010년 11월 19일 09:00~17:00 / 제주 신라호텔

□ 참석자 : 한·중·일 항만국장 및 정부 관계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 국책연구기관 :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소(한국), 국제임해개발연구센터, 항만공학기술연구소(일본), 수운연구소(중국)

□ 회의일정

○ 각국 정부정책 및 제안사항 발표

*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동북아 항만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주제로 각국 정책 제안

○ 공동연구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포트 구축전략
- ②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재해 방지 대책

○ 한-중 해상복합운송협정 추진현황 보고

○ 한-일 해상복합운송협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이회계획 논의

○ 제3차 물류장관회의 합의사항 이행계획 보고

○ 의사록 서명

2. 주요논의사항 및 협상전략

□ 3국간 항만정책 및 제안사항 논의

- 한·중·일 지역경제 공동체 형성,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동북아시아 항만물류체계 변화를 전망하고,
- 한·중·일 항만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안할 계획

▲ 항만국장회의시 아국 제안사항(예정)

- 한·중·일 물동량 모니터링 및 통합 예측시스템 구축
- 한·중·일 항만 개발계획 및 항만시설 현황 공유
- 한·중·일 항만물류 장비 및 표준화
- 한·중·일 해운-항만-철도 연계 수송망 구축(철도페리 구축)
- 3국 공동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항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포트 구축전략 수립
- 항만업체의 상호투자 촉진을 통한 항만물류네트워크 구축

□ 제3차 물류장관회의 합의사항 이행체계 마련

- 삼국 항만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기 국장회의에 보고한 후 자국 내 협의를 거쳐 제4차 물류장관회의시 보고서를 채택
- 각 국은 공동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 대표 각 1명을 지정, 3국 실무협의회 구성

붙임 2

동북아 항만 심포지움

□ 時·所 : 2010년 11월 20일(土) / 제주 신라호텔

□ 참석자 : 한·중·일 정부, 민간대표 약 200명 규모

□ 주요내용

- 환영사
- 한·중·일 3국 항만국장 기조연설
- 세션 1 : 동북아시아의 미래 항만전략
* The future logistics strategy in Northeast Asia

구분	소 속	발 표 자	비 고
韓	KMI	김범중 박사	
中	수운연구소(MOT)	Mr. Ji yongbo	
日	Kobe University	TAKEBAYASHI, Mikio	

○ 세션 2 :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의 미래 전망 및 비전

* The future prospects of Port for Green Growth

구분	소 속	발 표 자	비 고
韓	해양대학교	김환성 교수	
中	Qingdao Port Group	CEO Mr. Chang dechuan	
日	Kansai Economic Federation	SAKURAUCHI, Akihisa	

○ 제27차 IAPH(세계항만협회) 부산총회 소개